

시중은행, 내년 대출문턱 낮춘다 코픽스 하락에 금리도 인하할 듯

신한·국민, 주담대 한도 1억→2억
하나·우리, 주담대 등 비대면 판매
은행채 5년물 금리 2.974%로 하향
코픽스 10월 3.4%→이달 3.35%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
해 대출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제
한하던 것을 내년 초 실행 건에 한해 완
화하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
용지수)도 소폭 내리면서 금리도 인하
할 전망이다.

◆ 주담대 한도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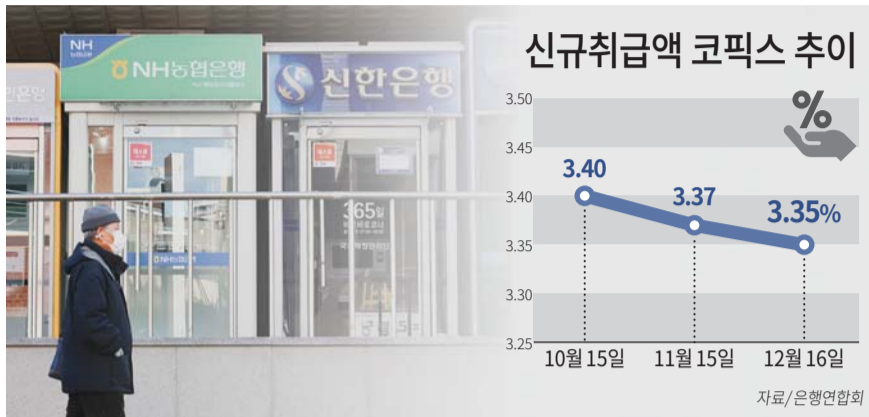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
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
출의 모기지신용보험(MCI)을 재개하
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다시 받
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제한했던 신규분양
미등기 건과 1주택 보유자 건도 취급한
다.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던 비대
면 신용대출도 재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제
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
로 결정했다”며 “대출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
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연간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



량 목표치가 새해를 맞아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
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대출을 완화하는 은
행도 있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은행 주택담보
대출로 갈아타는 것(타행 상환 조건부)
을 허용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비대면 아
파트·연립·다세대 우리WON주택대출
과 우리WON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
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허용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대출 총량 조절에
여유가 생긴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가계부
채 관리를 강화해 가계대출이 상당부
분 감소했다”며 “연말부터 일부대출을
받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일부 취급 상품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
했다.

◆ 대출금리도 소폭 ↓

가계대출 문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
담보대출 금리의 기본이 되는 은행채
(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
10월초 3.159% ▲11월초 3.304 ▲12월
16일 2.974%로 낮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본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
수)도 내렸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공
시일 기준 ▲10월 15일 3.4% ▲11월
15일 3.37% ▲12월 16일 3.35%로 떨
어졌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채와 코픽스 금
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은행이 대출 문턱
을 낮추고 있어 인하된 금리에도 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
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개인·외국인, 증시하락 ‘韓 인버스’ 투자

기관은 한국증시 상승에 배팅
개인·외국인-기관 ‘반대 행보’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
후 들어선 탄핵 정국에 개인 투자자
와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 하락
상장지수펀드(ETF)에, 기관은 한
국 증시 상승에 배팅한 것으로 나타
났다.

17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
난 16일 하루 동안 자금 거래량 상위
(1~5위)에는 모두 인버스·레버리지 E
TF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간을 최근
거래일 10일로 넓혀 잡아도 국내 증시
인버스·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 압
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개인과 외
국인의 행보와, 기관의 행보는 서로 반
대를 향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기관은 기초지
수인 코스닥150 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씩 추적하는 ETF인 ‘KODEX 코
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22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초지수의 일별수익률
을 매일 2배수만큼 추적하는 것을 목표
로하는 ‘KODEX 레버리지’도 163억
원가량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200지
수 움직임에 역방향으로 2배 배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를
130억원 매수했고, 외국인은 이를 91억
원치 사들였다. 또한 외국인은 코스닥
주가하락에 배팅하는 ‘KODEX 코스
닥150선물인버스(코스닥150 선물 지
수의 일일 수익률을 역으로 추종하는
ETF)를 하루에 25억원 추가 매수하기
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 증시
가 저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고,
인버스 ETF를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17일 종가 기준으로 KODE
X 레버리지 ETF는 전일대비 345원(-
2.33%) 하락한 1만4450원을 기록했으
나, 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는 전일대비 55원(+2.25%) 오른 2495
원으로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치이슈로 증
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연동되는 모습으로 단계적으
로 반등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한국 수출
모멘텀 둔화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수출 규제 및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등
이 상존하기에 큰 폭으로 반등하긴 쉽
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기자 zekova@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손진영 기자 son@

은행 막히니... 2금융권 가계대출 3.2조 ↑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영향
내년 은행권 대출기준 완화 전망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은행권이 대출 기
조를 완화하고 2금융권이 건전성에 고
삐를 쥐면서 ‘풍선효과’가 해소될 전망
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181
조4406억원이다. 전월(180조2293억
원) 대비 1조2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여신잔액은 391조
1962억원으로 5521억원 상승했다.

한달새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2조7000억원
대비 상승폭이 5000억원 증가했다. 특
히 지난 11월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
억원으로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
하면 상승폭이 가파르다. 상호금융사
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보험사가
각각 6000억원씩 늘었으며 저축은행은
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이
어지는 배경에는 스트레스 DSR(총부

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시행이 2개월 연기되면서
은행권이 ‘막차 수요’를 흡수한 것. 금
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것
을 주문했다.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달새 5조1000억원 증가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
계대출은 증가폭이 진정된 반면, 2금융
권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은행
권을 웃돌았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BYD, 올해 전기차 일본 판매율 72.5% ↑

>> 1면 ‘中 BYD의 위협...’서 계속

BYD코리아는 승용차 브랜드에 대
한 국내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2025년
1월을 목표로 BYD 브랜드의 국내 공
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차와 BYD는 일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BYD가 현대차를 가볍게 따돌린 상태
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13년 만에 재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올해(1~11월)
561대를 판매했다. 지난해(1~12월)
465대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12월 판매
집계가 남았음에도 100대 이상 더 판매

한 수치다. 이처럼 현대차가 선전했으
나 BYD는 일본에서 올해 11월까지
2134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김필수대림대학교자동차학과 교수
는 “BYD 전기차는 종류도 많고 품질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
을 마쳤다”며 “한국 시장 공략의 승부
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대미 수출 16개월 사이 첫 감소

>> 1면 ‘내년 예산 75% 상반가...’서 계속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외교부, 농
림부, 특허청,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
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무
역협회의 경우, 미국발 초국경보조금,
유럽연합(EU)발 역외보조금 등 새로
운 유형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가 시
급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
르면 지난달 총수출액은 563억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
쳤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액이 103억
8000만 달러로 5.2% 감소했다. 1년 전
에 비해 미국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16

개월 사이 처음이다. 대 중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0.7% 줄어 9개월 만에 감소
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각각 1.
3%, 1.6% 늘어나는 데 머물 것으로 보
고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역성장(-
1.8%)을 예측했다. KDI는 내년 수출
전망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내년 수
출 증가 폭이 올해(+8.8%) 대비 크게
둔화(+1.8%)할 것이라 예측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은 “정부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
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전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잘해야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